# 창녕 - 화왕산과 부곡온천

## - 억새 불태우는 화왕산, 전국 제일의 뜨거운 온천 -

정월 대보름날의 달집 태우기는 풍년과 액막이의 기원이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오래 된 민속이다. 달집 태우기는보름날 동산에 달이 떠오를 때 이루어지는데, 새해 첫 만월이 지닌 생명력과 생산력, 풍요로움에다 한 해의소망을 기원하는의식으로서 타오르는 불길이 액운을 쫓아 준다고 믿었으며, 불길이치솟을때소원과함께한해의풍년을 빌었다.

이 민속 행사는 정월 대보름에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,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와 말흘리, 창녕군고암면우천리일대에있는화왕산을 꼽을수있을것이다. 이곳의‘ 화왕산억새 태우기 ’행사는 그 규모나 내용면에 있어서전국제일의대보름행사라고할수있다.

이곳화왕산정상부의 10㎢억새평원에서 이루어지는불태우기 행사는 대개 3년 주기로벌어지고있는데, 2003년음력정월대보름에도그행사가이루어져서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가하였고, 그광경이 TV를통해전국적으로방영되었다.

먼저 화혼 행사라 하여 높이 13m의 달집이 세워지고, 여기에 사람들이 각종 소망과무병장수를비는기원문을써서걸어 둔다. 민속놀이 및 농악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이루어지고나면 달집이 불태워지고, 이어서 5만 6,000명에 이르는 거대한 억새의 산정이 불바다를이루면서 불태우기행사가절정을이루게된다.

높이 756.6m의 화왕산은 창녕군 군립공원으로지정된창녕고을의진산이자명산으로서 예로부터‘ 불의 뫼 로 불러왔다고한다. 그런데불의뫼라는이름은뫼부리의‘ 부리 처럼산을뜻하는옛말이지만,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밝음을 뜻하고, 지금의‘ 화왕산 이라는이름과서로 통하고있다. 불의뫼라는이름은불뫼>부리뫼>불의뫼>로 되었을 것이며, 여기서‘ 불 은 밝음을 뜻하는 광명이세로서 박달의‘ 박 ,’ 비사벌의‘ 벌 ,’ 불거뉘의‘ 불 처럼우리말과땅이름곳곳에남아있다.

우리나라훈몽(訓蒙) 책을보면산을다만 산봉우리라 하고 방언으로‘ 부리 라고 한다.

…날카로운칼날과같은봉우리를봉(峰)이라하는데, 오늘날그뜻을모두‘ 부리 ’라고한다.

- 정약용,「아언각비」

이 화왕산은 우리나라 5대 억새군락지로알려진곳이다. 억새는 우리 유행가 가사 중 “ 아, 으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”에 나오는 바로 그 으악새로서습지나냇가등물가에서 자라나는 갈대와 구분하고 있다.‘ 화왕산 은그이름대로 불기운이 왕성한 산, 거대한 억새 태우기 의장관이벌어지는산이니, 참으로그이름이명불허전임을알수있다.

이 화왕산의 불을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창녕군에있는부곡온천을그냥지나칠 수없게된다. 이곳은창녕군부곡면거문리의 원래 온정리라고 부르던 곳이다.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,‘ 온정리 라는 이름이이미온천이솟아나올것을예언하고 있지만, 그보다도 부곡면의‘ 부곡 은 즉‘ 가마골 로서가마솥을뜻하고있다.

말하자면화왕산의왕성한불기운을통하여 가마솥에 물을 데우고 있으니, 국내에서가장높은수온(74℃)의온천이솟아나오고있는셈이다. 물과불이이곳창녕에서기묘한조화를이루면서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.

**김기빈**
건설교통부중앙지명위원회위원
한국땅이름학회부회장